

어머니, 아버지, 아들, 그리고 아버지

2-5 장\*진

잠이 깬 것은 새벽 두 시 2분 전이었다.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잠자리가 불편했던 것도 아니다. 혹은 어떠한 통증 때문도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눈이 뜨이고, 순식간에 정신이 맑아지며, 억지로 잠을 청해 봤자 소용이 없는 수준까지 잠이 깨어 버렸다.

마른세수를 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왼쪽에는 아내가 몸을 고양이처럼 동그랗게 웅크리고 잠들어 있다. 아내는 잠을 참 잘 잔다. 등만 붙이면 바로 잠들고, 잠꼬대나 몸부림 등은 전혀 없이 새근새근 잔다. 잠자리가 바뀌어도-나는 그럴 때는 아예 밤을 샅 작정을 하고 눕는다-참 잘 잔다. 단점은 작은 소리 등에도 쉽게 깨고, 그렇게 한 번 깨면 상당히 오랫동안 뒤척거린다는 점이다. 이 기묘한 상극의 공존은 그녀의 매력 중 하나다. 조금 짧은 속눈썹-이것은 그녀의 고질적인 걱정거리 중 하나이다.-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나는 일종의 안정감을 느꼈다. 한밤의 고요가 그 안정감을 더해 주었다.

따라서 갑자기 방문이 끼이익 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을 때 나는 상당히 놀랐다. 반쯤 열린 방문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올해 세 살 난 딸애는 화장실을 무서워한다. 낮이면 몰라도, 밤의 화장실이라면 기겁을 한다. 나는 아내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침대의 스프링이 퍼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린다. 그 소리는 나를 조금 불안하게 한다. 방금까지 이불에 싸여 있던 발바닥이 방바닥에 닿자 서늘한 기가 올라왔다. 딸애는 뚱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아빠 안 자는 줄 어떻게 알았어?"

"자면 깨우려고 했어요."

화장실 전등을 켜자, 딸애는 조그만 손으로 제 눈을 가리다가 10초 정도 지나자 손을 내린다. 그러고는 내게 두 손을 뻗는다. 딸애를 안아 올려 변기에 앉혀 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뚱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바지 안 내렸어요."

다시금 안아 내리자, 주섬주섬 바지를 내리고는 내게 손을 내민다. 변기에 앉혀 주자, 역시 뚱한 표정으로 일을 본다.

"자기 전에 화장실 안 갔구나.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어진 거예요."

누굴 닮은 건지, 한 마디도 안 진다.

"갑자기 왜 웃어요, 아빠?"

"그냥."

"아빠는 웃으면 멋있는데, 찡그리면 못생겼어요."

나는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딸애도 맞받아친다. 작고 가지런한 치열이 드러난다. 나는 무심코, 아래턱을, 오른손으로, 매만진다. 딸애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아빠, 턱 왜 만져요?"

"..그냥."

잠시 침묵한 뒤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자, 딸애가 입을 열었다.

"근데 아빠, 왜 안 자고 있었어요?"

"아빠도 방금 깬어."

"왜요?"

"..양치 한 번 더 하고 자려고."

그 말을 들은 딸애는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변기에 앉은 채 한껏 기지개를 켜다. 그러고는 입

이 찢어져라 하품을 한다. 치열이 가지런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 아니, 젓니라 별 상관 없다.

딸애를 침대에 누인 뒤 이불을 덮어 주고 나온다. 한밤중의 집 안은, 평소의 그것과는 다르다. 팬스레 오싹한 기분이 든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칫솔을 집었다. 딸기 맛 치약을 길게 짜고, 시간을 들여 이를 닦는다.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몇 분 뒤, 입을 두어 번 행구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가지런한 치열이 그곳에 있다. 나는 하얀 이빨을 흘린 듯 바라다본다.

거실의 불을 끈 채로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는다. 눈이 적응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곧이어 침실에서 벗어난 밤의 가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일종의 안정감을 느꼈다.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 나 홀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노라면, 상당히 독특한 기분이 된다. 단순히 어두운 오후나 아침녘에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으면 이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 혹은 한밤중에 둘 혹은 여럿이서 앉아 있어도 이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 혹은 한밤중이고 혼자이지만 불을 켜 버려도 이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 한밤중, 혼자, 어둠.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기분을 나는 만끽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에, 동네에 하나씩은 있는 폐가의 문을 들어설 때 느낀, 어른들께 혼날 거라는 묘한 불안감과, 남들이 오지 못하는 장소에 용감하게도 왔다는 이유 모를 뿌듯함, 금지된 장소에서 느껴지는 고양감,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곳곳하게 이어지는 일상의 향기와 같다. 잠시 옛날 생각을 했다. 부모님과 동생, 친구들, 고향.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향기다. 어둠에 침잠하지 않고서는 확연하게 분리해낼 수 없는 복합적인 향기. 그것은 분명히 좋은 쪽에 속하지만, 쉽사리 손을 뺄기는 꺼려지는 성질의 것이다. 담배와는 정반대다. 분명히 나쁜 쪽에 속하지만, 쉽사리 손이 뺄려지는 성질의 것.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담배를 빼물어 불을 붙였다. 아니,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불을 붙이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한밤중에 깨어 있을 때면,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일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식탁의 의자들을 가지런하게 집어넣는다든지. 시계나 책 등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꿔본다든지. 커튼을 풀었다 묶었다를 반복한다든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빨랫감들을 살금살금 정리한다든지. 얼마 남지 않은 휴지를 교체한다든지. 밤이라는 시간대는, 사람에게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감각을 불러 일으킨다.

어느새 시간은, 4시를 넘어있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기를 그만두고 의무감 같은 심정으로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눕고 얼마 동안은 밤의 고요가 내 청력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색색거리는 숨소리만이 청력을 지배했고, 내 시력은 다시금 어둠에 침잠해 들어갔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일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지금쯤은 자 뉘야 한다. 잠이 오지 않았다. 양을 세기로 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일곱 마리, 다섯 마리... 몇 마리 세지 않아 곧 졸음이 밀려왔다. 아무래도 몸은 피곤했던 모양이다.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잠은 나를 끌어들여 저 심연으로 내던져 놓았다. 나는 얇게 잠들었다.

아침은 간단했다. 스팸. 김. 밥. 끝. 그나마도 딸애는 스팸만 먹었고, 아내는 몇 술 뜨다 말았다. 내가 아침 준비를 좀 부실하게 한 탓인가. 모르겠다. 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려도 이상하지 않은가. 아내는 얼마 안 지나 손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한다. 나는 딸애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앉아 있다가 방에 들어갔다. 아내는 정장 바지를 입고 와이셔츠를 걸친 채로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있었다. 옆으로 쓸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새하얀 목덜미가 보인다. 그녀는 목이 예쁘다.

“아침 그렇게 먹고 괜찮겠어?”

아내는 거울에 비친 나에게 고개를 몇 번 끄덕여 보인다. 나는 어깨를 으쓱한다. 딸애는 혼자서도 옷을 잘 입는다. 벌써 옷을 다 입은 딸애는 방 밖에서 제 엄마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다. 아내는 뒷머리를 묶는다. 평화로운 일상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아내는 늘 그렇듯이 출근길에 딸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준다. 아내는 나가면서 별 의미 없이 눈짓으로 인사를 보내고, 딸애는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격하게 흔들다가 문이 닫히면 ‘다녀올게!’라고 다섯 번쯤 소리친 뒤에야 엘리베이터에 탄다.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요와 고독이 엄습한다. 떠들썩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던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가운 온기만이 그 자리를 메운다. 그 온기는 나를 때로는 쓸쓸하게도, 때로는 기쁘게도 한다.

우선 아침 접시들을 싱크대에 밀어 넣는다. 청소기를 돌리고, 잡동사니들을 한곳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세탁물을 꺼내고, 새로운 세탁물들로 그 자리를 채운다. 소파에 앉아 속옷과 양말을 접어 장롱에 쌓아 놓고, 티셔츠와 정장 등은 따로 정리한다. 집안일은, 생각보다 힘들다. 그 말이 주는 울림의 가벼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부들의 노동이 폄하되어 왔던가. 그러나 그 고됨은 의외의 효력이 있다. 잡생각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는 기계적으로 움직여 집안일을 대강 끝마쳤다. 그리고 나면 대부분 점심때가 조금 지나 있기 마련이다.

나는 서재의 문을 연다. 말이 서재지, 그냥 작은방을 개조한 것뿐이다. 책상 앞에 앉자, 자연스레 위압감이 나를 짓누른다. 마른세수를 수 번 한 후, 머리를 감싸고 몸을 둥글게 만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글들, 써 왔던 글들, 머리 밖으로 나오지 못한 글들, 쓰지 못했던 글들이 머리를 가득 메운다. 그렇게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기를 수 분. 나는 뭔가에 떠밀리듯 글을 쓰기 시작한다. 원고지가 메워져 가고, 원고지가 구겨진다. 그러기를 수 시간. 곧 바닥에는 구겨진 원고지가 널브러져 걸을 때마다 툭툭 발에 치이고, 연필심은 순식간에 짧아진다.

머릿속에서 끈적하게 굳어버린 이야기를 현실에서 부드럽게 풀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 사실 머릿속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상상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종이 위에 풀어내는 특별한 사람만이 ‘작가’라는 영예를 얻는다. 과거의 나는 작가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를 작가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제는 머릿속의 이야기를 현실에 풀어내지 못한다. 이전의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쓰든, 평면적이고, 단면적이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야기밖에 쓰지 못한다. 나는 이제는 글을 쓰지 못한다.

그렇게 나는 서재에서 자기연민에 빠져 궁시령대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다. 시간은 4시쯤이었다. 자기연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내가 늘 내게 해주는 말이다. 나는 피식 웃으면서 소파에 몸을 문었다. 점심을 걸렀지만, 별로 배가 고프지는 않았다. 불현듯 자주 연락도 하지 않는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점심을 대충 드시거나 거르셨다. 혼자 있으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거실은 밝았고, 따라서 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 약간의 혼란과 번잡함을 느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받았다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약간은 거칠게 호흡하고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버지? 잘 안 들리세요?”

“나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 16세 연하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올해로 고등학교를 들어갔던가.

“...어, 오랜만이다. 아버지는 왜 대답 안 하셔?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오빠, 잘 들어. 오늘 아침에 엄마 돌아가셨어.”

나는 당연하게도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가 무슨 뜻이지? 동생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들렸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건 담담한 목소리가 아니라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으리라. 그러나 당시의 나에게 동생의 목소리는, 작두와도 같은 차가움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 동생과 내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전화를 끊은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천장의 주름 개수를 세었다. 37개였다. 다시 세었다. 51개였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어머니의 부고를 알렸으리라. 아내가 딸애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했던가? 아마 그랬으리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 작고하셨다. 타계하셨다. 영면하셨다... 내 머리는 차갑게 식었다. 마치 어머니의 시신처럼. 나는 그 생각 직후, 갑작스레 욕지기가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가 발작적으로 구토했다. 어깨와 아랫배가 두들겨 맞듯이 아팠다. 눈물이 몇 방울 흘렸지만, 슬픔 때문은 아니었다.

구토가 끝나자, 나는 양치를 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몇 분 뒤, 입을 두어 번 헹구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가지런한 치열이 그곳에 있다. 나는 하얀 이빨을 흘린 듯 바라다본다.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냉철해져 있었다. 나는 우선 양복을 찾았다. 회사 다니던 때 이후로 처음 꺼내는 듯했지만, 상태는 괜찮았다. 딸애와 아내의 옷이 생각났지만, 내 머리는 생각하기를 거부했으므로,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몇 분 뒤, 아내가 딸애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내는 약간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었고, 딸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천천히 걸어와 내 머리를 안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쓰다듬었다. 차가운 바깥 냄새와 연한 향수 냄새. 약간의 땀 냄새와 그녀 고유의 몸 내음. 그 복합적인 향기는 나를 울고 싶은 기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울지 못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일단은 딸애에게 저녁을 먹였다. 딸애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깨작거리다가 숟가락을 놓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딸애에게 미안했다. 세 살 아이는 눈치 같은 걸 보지 않아도 괜찮은데, 아내는 나를 따로 불렀다. 표정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한테는... 나만 다녀올게. 당신은 애 데리고 집에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당신이랑 결혼한 지 4년째인데 어머님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했어. 그럴 순 없어.”

“그럼 애는 어떡하고? 어린애까지 있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아.”

“손녀잖아,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 도리가 아냐.”

한 시간쯤 뒤, 결국 나는 아내와 딸애와 함께 차에 올라탔다. 오랜만에 입은 양복은 약간 불편했다. 구두도 마찬가지로였다. 아내는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신는 스타킹이 불편한지 자꾸 다리를 만지작거린다. 딸애는 검은 옷이 없어 검색 옷을 입혔다. 딸애는 조용했다.

“회사에... 말은 했어?”

아내는 고개만 끄덕인다. 그러고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뭐라고 말해 주고 싶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잠시 고민하던 나는 그냥 차를 출발시켰다. 장례는 고향 마을에서 한다고 했다. 고향까지는 최소 2시간 이상. 한밤중에 도착하겠구나. 나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며, 상당히 오랜만의 고향을 향해 액셀을 밟았다.

1시간을 좀 넘게 달렸을까, 딸애는 잠들었고,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팬스레 허끝으로 이빨을 훑는다. 청결함이 느껴진다. 바로 지금 당장, 양치를 하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한다. 그때, 아내가 입을 연다.

“여보.”

“왜?”

“내가 지금까지는 일부러 안 물어봤었는데.”

“어, 뭐?”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부모님이랑, 그.”

“의절, 했냐고?”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의절이라.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뒤 집에 간 적은 10번이 채 되지 않을 것이고, 결혼한 후에 집에 간 일은 한 번도 없다. 결혼식 때 만났고, 딸애를 낳았을 때도 부모님이 내려오셨다. 명절 때도 돈만 보낼 뿐, 가지 않았다.

부모님과 막역한 사이는 아니다. 누가 부모님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으라마는, 나의 경우에는 조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리라.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우리 둘의 중간에 끼어서 매일매일을 한숨으로 보내셨다. 물론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어머니도 그렇다. 손찌검을 당한 일은 한 번도 없고, 생활에 부족함도 없었다. 그저 뭐랄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잘 맞지 않았다. 오가는 고성과 대립, 강성한 자기주장, 불화와 다툼... 전적으로 나의 문제이리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내 감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저 불효자의 변명이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죄인이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 잘못 없으셔.”

“그렇구나...”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손끝을 내려다보며 입을 닫아 버린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나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나의 옛 가족에게 가는 길. 그러나 그곳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으리라. 나는 그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가슴 안쪽에 뭉근한 통증이 느껴졌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고향의 톨게이트를 통과하자, 변색된 하얀 팻말이 보였다.

‘??군 방문을 환영합니다.’

군의 이름 부분은 변색되어 지워져 있었다. 나야 고향의 이름을 알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싶었다. 그 찰나, 딸애가 깟다. 딸애는 작게 칭얼거렸다. 아내는 딸애를 달랜다. 조금 더 달리자, 익숙한 풍경들이 보인다. 시간이 10년은 멈춰 있는 듯한 논과 밭, 도로, 다리, 가게, 집들... 그렇게 몇 분쯤 달리자, 이 동네의 유일한 병원이 보인다. 시골 병원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병원이다. 시간은 벌써 11시에 가깝다.

차에서 내리자, 상당히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친다. 병원 문 앞에 서,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흠칫하며 뒤돌아보니, 웬 여학생이 서 있다. 두꺼운 안경을 끼서 얼굴이 작아 보인다. 팔에는 검은 완장을 꼈다. 줄은 한 줄이다. 동생이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교복 차림이다. 나는 웃는 것도, 찡그린 것도 아닌 어중간한 표정으로 인사한다.

“그래... 오랜만이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다. 손님들은 아직 계시니?”

“아니, 괜찮아. 지금은 다 가시고 아버지랑 몇몇 분밖에 없어.”

아내는 딸애를 달래느라 조금 뒤쳐져 들어와, 동생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둘은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언니.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아내는 조금 당황한 눈치다. 그야 그럴 만도 하다. 우리의 결혼식 때 보긴 했었지만, 잠깐 본 것뿐이었고, 그때 동생은 6학년 아니면 중학교에 갓 입학한 나이였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리라. 게다가, 나는 동생을 비롯한 가족에 관해 아내에게 잘 설명해준 일이 없다. 웬지 모를 죄책감이 내 가슴을 매웠다.

빈소는 한산했다. 동생의 말대로, 손님은 정말로 서너 명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구 휘저어놓은 듯한 기분으로, 천천히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부모님의 장례 때 자식이 절을 하는 게 맞던가? 나는 태연하게도 그런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어머니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뒤에서 딸애를 데리고 서 있었고, 동생은 그 옆에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생각도 나지 않았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현실감이 거의 없었다. 생각해보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짧은 문구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상주와 맞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던 참에, 동생이 우리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동생은 어른스러웠다. 조금 심할 정도로. 일반적이라면 대견한 감정을 느껴야겠지만, 내가 동생의 행동거지를 보고 느낀 감정은 부러움에 가까웠다. 식사는 곧 차려졌다. 별로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내가 점심과 저녁을 연달아 걸렀다는 것을 떠올렸다. 국은 육개장이 아니라 북엇국이었다. 동생도 우리와 같이 앉았다.

“너 밥 먹었니? 안 먹었으면 먹자.”

“괜찮아. 나 아까 먹었어. 언니, 드세요.”

분명 밥 먹을 경향이 없었을 텐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른다.

“경호? 경호냐?”

나는 뒤돌아보고, 아버지를 발견한다. 작고 마른 몸. 틀림없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조금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입구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술 냄새가 약간 풍기고, 하얀 입김이 나온다. 아버지의 정장 차림은 쪼그라든 아버지의 몸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는 나를 바라본다. 약간의 놀람과, 뭐라 형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기쁜 표정이다. 아버지는 곧 손을 떼고, 약간 허둥거리며 말한다.

“거, 잘 왔다. 암만 멀어도, 어머니 상에, 장남이 안 올 수는 없지. 암.”

아내는 엉거주춤하게 일어나 아버지에게 인사한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아니라, 아니야. 애기 네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얼굴 보니 좋구나. 아이고, 여기는 우리 손주 아니냐?”

아버지는 의식적으로 밝게 행동하려 애쓰는 듯했다. 술기운 탓일까.

“밤늦게 오느라 고생했다. 거, 어머니 인사는 드렸지?”

“예. 아까.”

“그래, 경호 너도... 건강해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어서들 밥 먹어라. 경희야, 너도 안 먹었지? 오빠네랑 같이 밥 먹어라. 내일 입관이니까. 먹어둬야지.”

동생은 아버지의 말에 별말 없이 숟가락을 집었다. 다들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딸애는 사이 다를 훌쩍거렸다. 북엇국은 매웠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운 국물은 가슴을 사정없이 할퀴었

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매운 것 때문이라. 몇 분간 대화 없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감돌았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동생에게 말을 던졌다.

“그래... 어머니, 어찌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셨니?”

동생은 밥을 말다가 움찔했다. 나도 말한 직후 움찔했다. 제기랄, 애한테 그런 걸 묻는 게 아닌데.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겠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언이다.

“엄마... 재작년에 수술하신 뒤로 계속 안 좋았잖아. 며칠 전에 폐렴 때문에 입원했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악화되시고, 오늘 아침에 그대로...”

말문이 막혔다. 아들로써도, 오빠로써도, 한 사람으로써도,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내 머리를 감쌌다. 아내도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고, 딸애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뒤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경희야, 그럴 거 없다. 호상이라, 호상이야. 너이들 어머니, 30대 때 저 간이랑 목 때문에 언제 가도 이상할 거 없다 소리 들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60살 넘게까지 아들딸 낳고 살면은 호상이지 뭐겠냐. 그럴 거 없다. 그럴 거 없어. 팬스레 마음 불편하게 할 거 없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말하듯 애써 그렇게 말했다. 그때 빈소에 남아 있던 마지막 서너 명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나도 면식이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이다.

“너 경호가? 경호야? 야, 이게 얼마 만이냐?”

아저씨들의 반가운 인사에, 나도 일어나서 인사를 드린다. 그분들은 전부 내게 악수를 청했다.

“경호야, 네 책 읽었다. 야, 경호가 그렇게 글로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을 시작으로, 장례식장은 조금 활기를 띠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다. 죽은 사람이 떠나고 유족들을 위로하도록 조금은 활기치게 대하는 것도 예의라고.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완벽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몸으로 느껴졌다. 아저씨들의 억지스러운 웃음과 활기는, 전혀 불쾌함을 주는 성격의 것이 아닌 호의와 애정의 산물이었다. 고향에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 아저씨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아내는 간단한 뒷정리를 했으며, 동생은 딸애와 놀아주고 있었다. 마치 가족 모임과도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모임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게는 상당한, ‘혼란’이었다.

“조문은 많이들 왔나요?”

“많이 오기는, 이 손바닥만한 동네서 뭐 많이 올 사람이나 있간디?”

“야야, 경호야. 신경 쓸 것 없다. 조문 올 사람은 다 왔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내일이 입관인데, 내일 아침에나 오면은 몰라도. 아 그리고 오늘 낮에 다 왔다 갔다. 신경 쓸 것 없다. 너거 친척도 없잖냐. 편하게 있다가, 내일 어머니 잘 보내드려라.”

아저씨들은 말을 과격하게 하는 것으로 복잡한 마음을 표현하셨다.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술잔만 기울였다. 가끔 나와 시선이 마주치면 부자연스럽게 피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웃고 떠들었고, 그렇게 슬픔을 애써 저 뒤쪽으로 밀어 놓았다. 주무시고 아침에 가시라는 만류에도 아저씨들은 입관은 가족끼리만 하는 거라면서 한사코 돌아가셨다. 다시금 빈소는 조용해졌고, 정말로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온기가, 나를 쓸쓸하게 했다. 아버지는 빈소 곁의 쪽방에서 주무셨고, 반대쪽의 쪽방에는 아내와 딸애가 자고 있었다. 동생은 식탁에 엮드려 잠들어 있었다. 나는 술에 취한 채 비칠비칠 걸어가 동생을 깨웠다.

“야, 경희야. 들어가 자라. 여기서 자면 감기 든다.”

동생은 부스스하게 일어나 나를 올려다보았다. 많이 컸구나. 라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하긴, 마지막으로 본 게 4년쯤 전이니까. 당연한가.



“오빠도 고생이네, 이 한밤중에 운전하고.”

나는, 순수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모님 곁에도 없고, 어린 동생 뒷바라지나 시키고, 혼자 출가해서 편하게 사는 놈한테는 과분한 칭찬이구나.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는 장남이, 뭘 놈의 장남이라고.”

술기운 탓인지,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온다. 동생은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네가 힘들겠구나, 네가 힘들겠어. 미안하다, 미안해...”

동생은 내 술주정을 가만히 들어 주었다.

“변변한 회사 취직도 못 하고, 글 나부랭이나 써서 잘난 척하고, 아내 돈이나 벌러 다니게 시키고, 이런 변변찮은 놈이 어디가 있겠냐?”

“오빠 책, 제대로 읽은 건 아니지만, 잘 썼던데.”

“그거 빈말이라도 고맙구나. 네가 진짜 효녀다. 세상천지 어느 고등학생이 부모님 장례를 치르겠냐? 넌 정말로 대단한 녀석이다... 네가 힘들겠구나, 네가 힘들겠어...”

“...오빠, 이렇게 말이 많았나?”

술기운은, 동생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눈 뒤 동생은 방에 들어갔다. 나는 텅 빈 장례식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차가운 온기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울지 못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이후 화장실에서 세수를 다섯 번쯤 하고, 일회용 칫솔로 양치를 했다.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잇몸에서 피가 났다. 별로 아프지는 않았다. 양치가 끝난 후, 물이 똑똑 떨어지는 얼굴이 더러운 거울 안에서 나를 켜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 의문은 나를 울고 싶게 했지만, 나는 역시 울지 못했다.

졸리다, 라기보다는, 머리가 멍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여자들만 있는 방에 들어가기도 좀 그랬고, 게다가 동생이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한방에서 자는 것은, 조금, 뭐랄까, 내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빈소 옆 벽에 기댔다. 열은 향내가 착 가라앉아 바닥을 맴돌았다. 너무나 속전속결로 진행된 하루였다.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어제 새벽의 일이, 직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 있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로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저 것보다 잘 나온 사진들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고, 이윽고 잠이 들게 되었다.

새벽녘, 눈을 뜬 나는 순식간에 잠기운이 달아났다. 어제 잠든 벽에 그대로 기댄 채였으나, 몸에는 웬 낡은 군용 잠바가 걸쳐져 있었다. 어릴 적 본 기억이 있다. 아버지의 것이다.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눈동자만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아버지가 영정 앞에 꿇어앉아 있다. 기도하는 듯하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교회에 데려가려 애썼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서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완전히 신앙심이 깊어지신 모양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옛 기억이 떠오른다. 내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공유하는 추억. 차가운 바깥바람과, 따뜻한 술집, 목구멍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액체, 쿼퀴한 잡내가 섞여 있던 돼지껍데기, 너저분하게 널려 있던 음식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학생 때쯤이라고 기억한다. 언젠가의 성탄 전야. 아버지는 오랜만의 휴일이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아침 10시쯤 나가서 밤 9시가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자 어머니가 나를 보냈다. 거리는 눈이 허벅지 높이까지 쌓여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고, 남자들은 잘 차려입고 여자들을 꼬셨으며, 여자들은 새침한 얼굴로 자신들끼

리 깔깔거리며 걸어갔다. 나도 적당히 거리를 쏘다니며 동네 여자애들 치맛자락을 쫓아다니다 새벽 1시쯤에야 아버지가 술판을 벌이고 있는 대폿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군용 잠바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이 붉다 못해 방금 막 잡은 돼지고기 빛갈이었다. 다른 아저씨들도 비슷했다. 아저씨들은 껄껄대며 자리를 비워 나를 앉혔고, 아버지는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나를 붙잡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끝없이 중얼거렸다. 아저씨들은 내게 막걸리 한 사발을 권했고, 아버지는 그때 삼겹살 세 줄을 한 번에 삼키느라 내가 마시는 걸 보지 못했다. 당연히 수년 전부터 흠쳐먹는 막걸리에 반쯤 중독되었던 나는 단숨에 마셨고, 아저씨들은 박장대소하며 한 사발을 더 부었다.

그러나 내 목적은 안주에 있었다. 거리를 쏘다니느라 배가 고팠던 나는, 식탁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안주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아저씨들은 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안주는 없이 술만 권했다. 그러다가 술집 주인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거, 애 술 가르치는 거야 상관없지만, 안주라도 먹여 가면서 가르치라. 애 숨넘어간다.”

아저씨들은 또 껄껄 웃으며 나에게 안주 접시를 던지다시피 밀어주었고, 나는 다 탄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족발 찌꺼기, 편육 조각, 찹자마자 고무인 줄 알고 뺄어낸 돼지껍데기, 박살난 두부김치, 콩치구이 꼬리, 식은 콩나물국을 훌훌 들이켰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들어갔나 싶다. 그렇게 나는 새벽의 대폿집에서 아버지와 아저씨들과 술판을 벌였다.

“예수님이 참으로 큰일 하셨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먹고 놀고 있겠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건배!”

한 아저씨가 꼬인 혀로 그렇게 말하자, 모두 폭소하며 건배했다. 아버지는 궁시령대며 오돌뼈를 뺄어냈다. 그러고는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거, 누가 들으면 친구 이름인 줄 알겠다. 저 만리타국 사람 생일을 왜 이리 축하들을 하는지, 나는 그것이 어렸을 적부터 의문이었어.”

“자네 마누라가 들으면 집에서 쫓겨날 소리를 하는구먼.”

한 아저씨가 그 말을 하자 아버지와 나까지도 폭소를 했다. 그 뒤에 아버지는 곧 웃음을 거두더니 갑자기 나를 붙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꼬부라진 아버지의 혀는 진지함을 배가해 주었다.

“종교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이 아버지는 생각한다. 아버지는 말이다, 공부도 못했고, 변변한 데 취직도 못 해서, 너이 엄마랑 너한테도 면목이 없지마는! 그래도 나 자신을 믿고, 어? 그런 나약한 데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을, 최대의 자부심으로 알고 살고 있다, 이 말이다, 경호야! 이 아버지 말 알겠나!”

나는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아버지의 위대함에 무한한 존경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눈짓으로 표현했다. 당시 아버지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다. 대폿집은 따듯했고, 음식은 식었으며, 술은 목을 타고 흘러 몸을 차갑게 덥히고, 뜨겁게 식혔다.

자리를 파하고 대폿집을 나선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다. 아버지는 군용 잠바에 양손을 찢러넣고 거의 대로를 점령하며 갈지자로 걸었다. 내 정신은 놀랄 정도로 멀쩡했다. 아버지는 성큼성큼 앞서나갔고, 나는 따라가기 바빴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붉은 가로등은 계속 내리는 눈으로 아름답게 빛났고, 눈은 발목을 자꾸 잡아채어 아버지와 나를 비틀거리게 했다. 아버지와 나는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걷고 있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로등 아래에 멈춰 서더니, 나를 뒤돌아보고 물었다.

“경호야, 이 애비가 부끄럽나?”

“...갑자기 뭘 말 하십니까?”

“어디 양복 딱 하니 입고 회사 다니는 아버지에 비하면, 노가다판 뛰는 이런 애비는 부끄럽지 않나? 솔직하히 말해봐라. 화 안 낸다. 부자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 함 해 보자.”

“...공부 잘하고 씹 잘하고 주말마다 여자애들 몰고 다니는 애들에 비하면, 이런 공부도 못하고 씹도 못하고 여자애들 얼굴도 못 쳐다보는 아들 안 부끄럽습니까?”

아버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뒷짐 진 채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반 박자 늦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난 그런 아들 안 부끄럽다. 그러니까 너도 이런 애비가 안 부끄럽다, 이런 말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버지는 약간의 어색함과 즐거움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레슬링 기술을 걸며 눈발에 함께 쓰러졌다. 그러고는 뒤로 물러나 눈을 멍쳐 내게 던지기 시작했다. 나도 질세라 별떡 일어나 눈을 뿌렸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큰 소리로 웃어대며 한동안 눈싸움을 했다. 그 웃음소리는 골목을 가득 채웠고, 계속 내리는 눈도 그 소리를 덮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어깨동무를 한 채로 대문을 들어섰고, 어머니에게 ‘부자가 쌍으로 자알 한다’라는 말을 듣고 쓰러지듯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국 끓이는 냄새에 잠을 깬 나는 아버지와 겸상하고 해장을 했다. 북엇국이였다. “속은 괜찮냐?”

아버지가 툭 던진 질문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는 옆에서 우리를 흘겨보며 말했다.

“10시에 교회 가게, 빨리들 먹고 옷 차려입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 그것도 애까지 같이?”

나는 뚱한 표정으로 북엇국에 밥을 말고 한 술 폈다. 매콤했다. 고개를 들다가, 빨쫘한 표정으로 턱을 긁적이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미소를 내게 보냈고, 나도 화답했다. 그 순간, 벽지가 다 뜯어진 작은 부엌의 밥상 앞에서, 아버지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아버지와 나는 동네의 유일한 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여했다. 나는 교회 여자애들의 뒷모습만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꾸벅꾸벅 졸았다. 예배가 끝나자, 여자애들은 내가 앉은 자리를 뺏하니 지나쳐 걸어갔고, 그녀들에게서는 비누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좋아했다. 옆자리에 앉은 아버지는,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아버지는 장난스러운 눈웃음을 지었고, 그 순간도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목조 건물 특유의 나무 냄새, 아버지의 눈웃음, 면도하지 않은 턱, 깡마른 뺨, 그리고 거기에 한 방울 첨가되는 비누 냄새. 그것들이 모두 모여서, 나의 고향을 이룬다.

옛 생각을 하던 나는, 완전히 잠이 깨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군용 잠바를 조심스레 옆으로 치우고, 구겨진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일어났다. 아버지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방에 와 자지 그랬니. 뭇하러 밖에서.”

나는 멧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군용 잠바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는 양복 상의 위에 군용 잠바를 걸쳐 입고 턱을 쓰다듬은 뒤, 내게 시선을 보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던 참에, 장례 관계자가 왔고, 나는 관계자와 여러 절차를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웬지 모르게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을 지은 듯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껴졌다.

아침쯤부터 점심때까지, 드문드문 조문객들이 왔다. 동생의 친구들 몇몇만이 다녀갔다. 점심이 지나자, 관계자가 와서 입관할 시간이라고 언질을 주었다. 입관실은 바깥에 따로 있었다. 아내는 딸애를 데리고 있기로 했기에, 나와 아버지, 동생만 들어갔다.

어머니는, 확실히 죽은 것처럼 보였다. 많이들 죽은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잠든 것 같다’고들

하는데, 어머니는 전혀 잠든 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의 시신에서는, 무생물, 혹은 나무나 가구 같은 것을 볼 때 느껴지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견고함만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고, 동생은 눈을 내리깔고 손 거스러미를 뜯었다.

“이제 어머니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가슴 아프시겠지만, 한번씩 얼굴들 뵙고 작별 인사해 주세요. 그래야 어머니도 걱정 않고 떠나실 수 있어요.”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의 시신 앞에 가 섰다. 아버지는 입을 여닫기를 네 번 정도 반복한 후, 한숨을 한 번 깊게 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동생은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시신 앞에 가 섰다. 아랫입술을 꼭 깨무는 동생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것은 무감각함이 아닌 감정의 과잉에 가까웠다.

“엄마...”

한참을 있던 동생은 겨우 그렇게만 말했다. 아버지는 눈을 훔쳤고,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어머니 앞에 가 섰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새하얀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얀 옷을 그다지 즐겨 입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자 이 모든 상황이 더없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때, 어머니의 약간 벌려진 입술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 쪽에는 어머니의, 가지런하지 못한 치열이 있을 터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안은 새카맣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 빨려 들어간다는 감각을 느꼈다.

어머니의 시신을 들어 관에 넣고, 시신을 줄로 묶었다. 관은 닫혔고,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냉철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얼이 빠진 것처럼 걸어 나왔다. 동생은 급기야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더니, 세면대의 물을 틀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고, 나는 그런 아버지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물소리는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점심때를 좀 지나자, 손님들이 꽤나 오기 시작했다. 아내는 동생과 손님 접대에 전념했고, 나와 아버지는 손님들과 인사했다. 모든 마을 어른들은 나를 알아보았고, 딸애의 이름을 묻곤 했다. ‘그 경호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 오다니’라는 반응이었다. 식탁 사이사이를 누비는 아내의 분주한 모습을 보고는 ‘마누라 잘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분주함은 슬픔을 잊게 했다. 나는 그 분주함이 고마웠다.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손님들의 행렬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끊겼다. 아버지는 이제 올 사람들은 다 왔으며 동생과 나더러 쉬라고 말하고는 들어갔다. 작은 마을이기에 가능한 처사이리라. 도시의 장례식은 언제 누가 올지를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마을 사람들만 오고 나면 조문객이 없는 법이다. 새벽에야 찾아오는 타지로 출가한 아들딸들을 빼면 말이다.

“내일 너이들 어머니 보내는 날인데, 일찍들 자 두고, 그래도 다 끝났구나. 시간이 참 빨라.”

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말하는 시간이 어머니와의 만남부터 이별인지, 아니면 이 장례식을 말하는지는 굳이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경호야, 나랑 담배나 피우고 오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일어났다. 바깥바람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여 천천히 피웠고, 나는 몇 모금 피우고 손에만 들고 있었다. 목이 칼칼했다. 뒷집을 진 아버지의 등은 어깨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몇 년 사이 체격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꼈다. 아버지는 작게 입을 열었다.

“고생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오고. 며늘애랑 손주도 고생 많았겠다.”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몇 년 만에,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좋구나. 너이 어머니가 내 소원을 들어줬나.”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멍쩍게 얼굴을 굽적였다. 나는 서서히 차오르는 약간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소하고 별일도 아닌 다툼으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거북함을 견디지 못해 멋대로 도망가 반쯤 의절했던 못난 장남을, 아버지는 용서해 주었다. 죄송한 마음이, 목구멍을 채웠다. 죄송하다는 표현보다는, 면구스럽다, 는 표현이 어울리리라. 수년간 배양해 왔던 서운함과 불편함은,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리라. 진작에 그런 것은 없어졌으나, 내 핑곗거리로서 산재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죄송, 합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된 소리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내가 죄송할 게 뭐 있냐?”

은퇴한 두 부모님을 찾아가기는커녕 연락도 몇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명절에도 돈만 덜렁 보내고, 아내와 딸애한테는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동생에게 짐을 지웠다. 그야말로 아집에서 우러나온 민폐이며, 씻을 수 없는 죄이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짧게 다투고 난 다음 날 아침처럼, 가볍게 용서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일종의 경외감을 느꼈다.

“출다, 들어가 자자.”

아버지는, 마치 싸우고 난 다음 날 화해한 듯한 어색한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아침의 화장터는 한산했다. 어머니의 관은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화장터로 들어갔고, 화장은 꽤나 오래 걸렸다. 어머니의 몸은 재가 되고 있으리라. 어머니의 손, 발, 치열. 갑작스레 그 윤곽들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놀랄 만큼 강렬한 상실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손수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선두에 서 걸었고, 나는 어머니의 영정을 들었다. 동생과 아내, 딸애가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초라한 장례식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집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했다.

“임자, 자네 방일세. 이제 못 올 테니 잘 봐 두게.”

부엌에서는,

“임자, 부엌일세. 이제 경희 차지가 되겠구려.”

화단에서는,

“임자, 자네 꽃들일세. 이리 갈 거 뭐 그리 힘들게 가꿨는가.”

그리고, 현관의 아버지 어머니 결혼사진.

“임자, 우리 이때 기억나는가? 참말로, 고생만 시키고 가는구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동생은 진작부터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장지로 이동할 때도 손수 유골함을 들고 걸었다. 장지에서는 굴착기 기사가 미리 와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유골함을 조심스레 무덤 정 중앙에 놓고는 흙을 양손으로 가득 퍼 유골함 위에 부었다. 그러고는 내게 눈짓했다. 나는 영정을 동생에게 맡기고 흙을 부었다. 내 손으로 어머니를 묻는 기분이었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동생과 아내도 흙을 부었고, 딸애도 조심스레 흙을 한 줌 부었다. 남은 작업은 굴착기가 진행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장지는 탁 트인 중턱 즈음에 있었고, 바람이 불어 시원했다. 저 멀리 논과 밭, 저수지가 보였고, 푸른빛의 산과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몇 분 뒤, 매장은 끝났다. 장례식은 끝났다.

“얘기야, 건강 조심하거라, 직장생활도 몸 사려가며 하고.”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뭔가 말했다. 아내는 아버지에게 역시 건강 챙기시라고 비슷한 말을 건넸다. 자주 찾아뵙겠다는 말도. 아버지는 딸애와도 가볍게 작별 인사를 했다.

딸애는 제 할아버지에게는 낯을 가렸으나, 제 고모에게는 풀썩 안겼다. 그 며칠간 정이 든 모양이다. 동생은 딸애에게 다음에 또 보자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동생과는 간단하게만 인사했고, 동생과 아내가 인사하고 있을 때 풀을 뽑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펴고서야 내가 근처까지 다가온 것을 눈치챘다.

“아버지, 가 볼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주 찾아뵙게요.”

“그라, 자주 올 것 없다. 너이 가족 챙기는 게 1번 아니냐.”

“아버지가 제 가족 아십니까.”

내가 말해 놓고도 흠칫했다. 아버지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짓더니 안심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녀석, 다 컸구나. 다 컸어.”

그 이후로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동생과 아버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었다. 고향을 나설 때, 변색된 하얀 팻말이 보였다.

‘당신은 ??군을 떠나고 계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향을 뒤로하고, 지금의 집으로 돌아간다. 아내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고, 딸애는 깊게 잠든 듯했다. 나는 아버지와 동생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연속성이었다. 3일간의 장례식에 대한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아내는 딸애를 씻겨서 재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고했어.”

“당신이야말로.”

“아버님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 글을 쓰던, 못 쓰던.”

아내는 약간 내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한다. 글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것이 불화의 첫 단추였다고, 나는 기억한다. 가족에게서 분리되어, 글을 썼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가족은 분리될 수 없다. 글이 써지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있으리라.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 말을 아내에게 해 주며, 아내의 머리를 안았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모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차례차례 해 나가며, 때로는 글을 쓴다. 가끔 자다가 밤에 깨어나고, 그럴 때면 가만히 앉아 밤의 고요를 즐긴다. 아내는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한다. 딸애는 평범하게 쾌활하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다시금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다. 의미부여를 하자면, 복잡했던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든 개선되었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것과 글쓰기가 직접적 관계가 없음은 누구나 안다.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장례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던 나는, 갑작스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전화를 끊은 직후, 머릿속에 글귀가 떠올랐다. 그뿐이다. 잠이 자연스럽게 깨어 버린 밤이다. 나는 아내와 딸애를 깨우지 않게끔 살금살금 걸어가 양치를 했다. 나는 내가 왜 이토록 양치에 집착하는지 알고 있다. 어머니는 치열이 고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대단히 싫어했고, 내 치열은 고른 편이었음에도 발작적으로 이를 닦았다. 어째서 그때는 그것이 그토록 불결하게 느껴졌는지, 모를 일이다. 어머니의 고르지 못한 치열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어릴 적의 양치가 떠오른다. 어머니는 나를 당신의 무릎에 누이고 직접 양치질을 해 주셨다. 양치를 잘해야 엄마처럼 이빨이 못생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 시간을 좋아했다. 나는 분명,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리라. 그 고르지 못한 치열도, 어릴 적의 양치 시간도, 어머니라는 사람 자체도. 어쩌면 이미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리라. 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과 가족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한밤중의 거울을 언제까지고 들여다보고 있었다.